

결정적 사건으로 바라본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의미 찾기

김 현 경
한양대학교 대학원

유 영 만*
한양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부모교육강사이자 자문화기술자인 저자가 부모로서 겪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결정적 사건들과 자녀로서 경험한 성장과정에서의 결정적 사건들 간의 영향관계를 성찰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부모로서 겪고 있는 ‘고통’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자녀로서 겪었던 경험에 의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내었다. 둘째, 부모로서의 ‘성장’은 부모로서 겪고 있는 ‘고통’의 영향관계 및 의미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이 있을 때 가능하였다. 셋째, 부모로서의 ‘행복’은 ‘고통’의 영향관계와 의미를 깨달게 된 즉, ‘성장’한 부모에 의해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노정이었다.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의식적 질문 던지기’와 ‘폭넓게 성찰하기’, ‘인간적 관계 실천하기’를 제언함으로써,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결정적 사건, 부모로서의 삶, 의미 찾기, 자문화기술지

* 교신저자(010000@hanyang.ac.kr)

1. 들어가기

정보와 지식의 폭발적 증가현상은 부모의 삶에 대한 접근 역시 과거에 비해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와 지식에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와 지식으로는 더 이상 복잡하게 발생하는 부모자녀 간의 문제나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 부모의 양육태도 결정 등의 문제에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박성환 · 최성우, 2010). 이러한 어려움은 각종 사회현상 속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미디어 중독, 인성문제, 청소년의 일탈 및 자살 등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EBS 파더쇼크 제작팀(2013)에 의하면 오늘을 사는 한국의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대표적 정서로서 아빠들은 ‘혼란’을, 엄마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고, 아빠들은 어떤 것이 옳은 원칙인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엄마들은 넘쳐나는 육아정보를 흡수해 열심히 양육해보려고 하지만 계속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물고 올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의 안녕과 행복을 희망하는 한국의 부모들은 양육과 관련하여 정체 없는 불안과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부모들은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죄책감에 휩싸이며 절망한다. 최해옥 · 김성길(2015)의 보고에서처럼 가족의 화목과 자신에 대한 이해, 관계향상 등의 강한 학습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조차도 전환적 배움의 실천 현장인 가정에 돌아가서 배움을 실천하다 보면 좌절하게 되고 배워봤자 소용없다는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끊임없이 부모로서의 삶을 노력하지만 왜 좌절에 부딪히게 되는가? 좌절한 부모는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부모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저자는 본인이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경험했던 결정적 사건(critical events)(Woods, 1993)들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가 의미하는 바를 성찰하고자 한다. 결정적 사건이란 이야기 속에서 화자의 생각이나 세계관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을 의미한다. 저자가 자녀로서 경험한 본인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결정적 사건이 부모로서 겪게 되는 양육갈등의 결정적 사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영향 관계와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 부모로서 부딪치고 있는 좌절 상황에 대한 개선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아기의 애착 유형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성인기에 발생하는 결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점(Wallin, 2007)과, 부자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그들의 성장과정에 대하여 장기적이며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김명찬, 2015)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과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을 성찰하고 그 사이에 관련되어 있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며,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통하여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부모로서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에 보다 용기 있게 대면할 수 있을 것이며, 불확실성에 의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도 자녀를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성장과정과 자녀양육 간에 발생하는 사건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과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 간의 영향 관계를 자문화기술지로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부모들에게 양육갈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과 변화의 과정을 제시하는 연구는 더욱 드물다. 국내연구 중 부모의 삶과 관련된 자문화기술지에는 남수경 · 김명찬(2016), 박미옥 · 김명찬(2015), 이원희 · 곽승철(2014), 황인숙 · 김명찬(2016)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 사건을 통하여 부모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구체적 갈등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상황맥락 안에서 어떻게 부모가 성찰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에게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새로운 변화 가능성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개를 하고자 한다. 첫

째,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과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 간에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체적 사건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둘째, 결정적 사건들 간의 영향 관계를 이론과 연결하여 부모로서의 삶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할 것이다. 셋째,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의미 찾기를 위하여 부모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바를 제언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결정적 사건 중심의 자문화기술지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과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 간의 관계와 의미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고 기술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를 선택하였다.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의 경험을 자기 내러티브(self-narrative)를 통하여 독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연구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특성을 제시하는 연구방법이다(Chang, 2008). 즉, 저자인 연구자의 자아가 드러나는 이야기 또는 연구자가 이야기의 일부 텍스트의 인물로서 포함되어 언급될 때 사용되는 글쓰기 양식(김영천, 2013b)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과 성찰에 대한 저자의 목소리와 반영성을 강조하며 그에 더해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해를 돕는다(Jones, 2005). 특히 자문화기술지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한 인간이 겪었던 삶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구성하는지를 통하여 그 안에서의 인간의 성장과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김영천, 2013b). 따라서 결정적 사건 중심의 자문화기술지인 본 연구는 부모이며 자녀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들 간의 관계를 반성적으로 파악하고 기술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위치한 사회 문화적 영향 관계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야기 속에는 화자의 생각이나 세계관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건을 결정적 사건이라고 하며, 화자의 직접적인 성취나 역할 또는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사건의 발생시점과 사건에 대한 회상시점 간의 시간 차이가 클수록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커진다(김영천, 2013a). 따라서 결정적 사건은 개인

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의미 있는 변화의 장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건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그 사건으로 인하여 후행되는 당사자의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과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이해는 한국에서 부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비슷한 맥락 속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상처 입은 부모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치유의 과정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자문화기술지의 ‘치료적 가치(therapeutic value)’(Ellis, 1999) 역시 잘 드러낼 것이다.

리드-다나헤이(Reed-Danahay, 1997)는 자문화기술지의 세 가지 유형으로 원주민 또는 소수자 문화기술지(native ethnography, minority ethnography)와 성찰적 문화기술지(reflective ethnography), 자(서)전적 문화기술지(autobiographic ethnography)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는 점에서 성찰적 문화기술지이고, 자녀로서 겪은 결정적 사건에서부터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긴 삶의 여정 속 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서전적 문화기술지라고도 볼 수 있다.

2.2. 부모·자녀·부모교육강사로서의 자문화기술지

부모인 동시에 자녀인 저자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과, 자녀로서 본인의 성장과정에서 겪은 결정적 사건들 간의 관계를 부모교육강사로서의 시각을 더하여 성찰하고 기술한 자문화기술자(autoethnographer)이다. 자문화기술자는 독자들에게 특히 개인적인 삶의 이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연약한 위치성(positionality)을 갖게 되지만, 반면 이야기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자의 존재와 인식의 특징과 한계를 독자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뢰성(trustworthiness)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이동성, 2011). 자문화기술자로서의 저자는 부모와 자녀로서 경험한 각각의 결정적 사건들 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저자의 삶에 자녀로서의 저자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깨달음이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한다. 또한 부모교육강사

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저자의 위치는 자칫 부모와 자녀로서의 자문화기술자가 빠지기 쉬운 주관적 편향과 자기연민 및 자기몰입의 감정적 소용돌이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좀 더 간주관적(intersubjective)인 시각에서 부모와 자녀의 삶을 보다 거시적으로 균형 있게 기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부모로서의 자문화기술자인 저자는 30대 초반(2000년대 초반)에 학구열이 뜨거운 광역시의 한 아파트촌에서 빠른 년생의 외아들을 출산하였다. 친가와 외가 등 주변 가족들로부터의 양육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외아들의 양육은 거의 저자에 의해 전담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술된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은 외아들의 출생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의 사건들로 국한되었는데, 이는 사춘기 이전의 자녀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부모의 양육경험을 보다 집중적으로 성찰하기 위함이었다.

자녀로서의 자문화기술자인 저자는 70년대 초반 외딴 농가에서 1남 3녀 중 차녀로 출생하여, 열 살이 될 때까지 조모와 부모님, 4남매와 함께 3대가 한 가족을 이루는 대가족 형태에서 성장하였다. 그 후 국민학교 6학년여 올라가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조모와 남매들과 대도시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가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삶을 살기 이전까지의 성장과정 즉, 저자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취업 전까지의 자녀로서 겪었던 결정적 사건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모교육강사인 저자는 1969년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29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교육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2008년 늦가을 처음으로 부모교육을 접하게 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대화법, 진로지도, 학습지도 관련 자격을 과목당 150~18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의해 부모교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의 광범위함에 의하여 부모코칭, 에니어그램, 버츰 프로젝트, 강점탐구, 퍼실리테이션, 스트레스 관리, 성교육, 양성평등, 직업상담 등 다양한 영역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2.3. 연구절차

장(Chang, 2008)은 자문화기술자가 가지는 방법론적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연구논리와 절차는 일반적인 질적 연구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동성(2012)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제시한 자문화기술지의 연구절차인 ‘주제선정-자료의 수집과 관리-자료의 분석과 해석-자문화기술적 글쓰기’의 절차를 따랐다.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적 기억자료 즉, 개인내부 자료(intrapersonal data)와 반성적 저널을 강조한다(Wal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또는 자녀로서 경험한 개인적 기억자료, 자기관찰자료, 면담자료, 사례집, 메모, 사진, 그림,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개인적 기억자료와 자기관찰자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분석대상인 개인내부 자료와 자기관찰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결정적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과 사건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성찰과 분석은 주로 저자가 부모교육 강사과정을 시작한 2009년부터 약 5년간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결정적 사건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론적 분석과 해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3년간 다양한 이론적 근거와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프랭클(Frankl, 1947)의 로고테라피(logotherapy)와 쇤(Schön, 1983)의 실천적 인식론(practical epistemology)을 중심으로 구체화 되었다. 특히 프랭클(Frankl, 1988)의 ‘차원적 존재론(dimensional ontology)’과 ‘의미 찾기’는 양육과 관련된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 자녀양육의 어려움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쇤(Schön, 1983)의 ‘행위-후-성찰(reflection-on-action)’과 ‘행위-중-성찰(reflection-in-action)’은 수집된 자료 중 부모로서의 결정적 사건과 자녀로서의 결정적 사건 간의 관련성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부모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문화기술적 글쓰기의 절차를 따르되, 결정적 사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대기적 기술이 아닌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과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 간의 영향 관계와 그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 대신, ‘부모로서의 결정적 사건(저자를 ‘엄마’로 칭함)-자녀로서의 결정적 사건(저자를 ‘나’로 칭함)-부모로서와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삼각구도 형식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부모이며 자녀인 자문화기술자로서의 저자의 삶은 ‘3. 불안한 자녀의 세계, 걱정하는

부모의 시선'에서 여섯 가지의 주제들을 통하여 이야기의 삼각구도 형식에 따라 집중적,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강사로서의 저자의 시각을 더하고, 결정적 사건들 간의 영향 관계와 의미를 이론과 연계하여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석한 내용은 '4. 혼돈의 가장자리, 의미 있게 일어서기'에서 부모로서의 삶이 가지는 의미 세 가지에 집약되어 기술되고 있다.

장(Chang, 2008)의 자문화기술지 글쓰기 방식에는 기술적-사실적 글쓰기, 고백적-감성적 글쓰기, 분석적-해석적 글쓰기, 상상적-창조적 글쓰기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적 사건과 관련된 글쓰기에는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지나친 주관과 객관을 오가지 않도록 기술적-사실적 글쓰기와 고백적-감성적 글쓰기를 결합하였다. 또한 이론과 연결된 결정적 사건들에 대한 이해는 분석적-해석적 글쓰기를 시도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보다 거시적인 담론에 연결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야기에 속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가명 처리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보하였다.

저자는 연구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문화기술자가 빠지기 쉬운 주관적 편향에서 벗어나 간주관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 가지 측면의 타당도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질적 자료의 수집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 기억자료, 자기관찰자료, 면담자료, 사례집, 메모, 사진, 그림, 기사 등 다양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개인적 기억자료와 자기관찰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결정적 사건 발생 당시 주변인-저자의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친구-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들 간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는지 확인하였고, 개인적 성찰에 의한 인식과 실제 타인에게 전달된 것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둘째, 연구 결과의 검토 측면에 있어서 다수의 분석가를 참여시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문화기술자인 저자는 부모이며 자녀인 동시에 부모교육강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수분석가 삼각검증을 위하여 저자와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선별하여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제공받았다. 검증에 참여한 분석가의 조건은 자녀가 사춘기를 넘길 때까지 직접 그 자녀를 지속적으로 양육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만 6년 이상의 부모교육강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각각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등의 자격을 지니고 실제 상담경험이 있거나, 교육관련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다. 또한 비판적 동료 검증과 독

재검증을 통하여 자료 및 분석 결과를 재검토하였다.

셋째,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의 이론 적용 측면으로 결정적 사건들 간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프랭클(Frankl, 1947)의 로고테라피와 쇤(Schön, 1983)의 실천적 인식론의 관점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런 이론적 관점을 통하여 결정적 사건 속에 숨겨진 부모의 삶이 가지는 의미와, 현재 한국에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3. 불안한 자녀의 세계, 걱정하는 부모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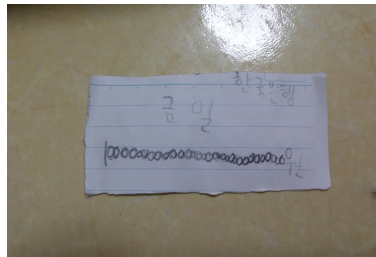
불안과 갈등을 드러내는 부모로서 겪은 결정적 사건에 대한 저자인 ‘엄마’의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아들’과 관련된 하나의 공통된 맥락을 바라보는 ‘엄마’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식의 흐름은 자녀가 속해 있는 불안한 세계를 바라보는 부모로서의 각기 다른 시각의 변화 과정을 드러낸다. 각 절마다 제시된 ‘부모로서의 결정적 사건-자녀로서의 결정적 사건-부모로서와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삼각구도 형식은 저자가 아들과 본인의 특성 및 그들이 경험했던 불안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성찰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시 여유롭게 아들과 본인, 그리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제시한다.

3.1. ‘엄치’에 숨겨진 좌절된 ‘육구’

저자인 ‘엄마’에게는 외동아들이 있고, 그 아들에게는 두 명의 죽마고우가 있었다. 생후 6개월 즈음에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그 아이들은 조부모님과 부모님들로부터 물질적으로 매우 큰 지지를 받으며 성장했다. 두 친구의 집에 놀러 가면 저자의 아들은 온갖 신기한 장난감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곤 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아이들이 직접 타서 운전할 수 있는 전동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두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고 전동차를 타고 밖에 나가는 날에는 비슷한 또래아이들이 쫓레쫓레 따라오곤 했다. 일명 아이들 세상에서의 ‘야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즈음부터 저자인 ‘엄마’의 아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

작했고, 엄마는 계속해서 설득해야만 했다. 두 명의 죽마고우와는 달리 조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고, 또 외벌이여서 넉넉한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사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마트에 가기 전부터 아이와의 지루하고도 끝이 없는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붉으락푸르락하며 이런 말을 내뱉었다. ‘현우랑 창민이는 다 있잖아! 왜 나만 안 사줘? 나도 사줘!’라고.

2008년 여름 아들이 3학년이던 어느 날, 아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에게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난 도둑이 되어도 대도가 될 거야.’라고. ‘도둑이 된다니? 그것도 대도! 이게 뭘 소리야?’라는 생각을 하며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곤 금세 알아챘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센 걸 좋아했다. 아이의 첫 장래희망은 ‘호랑이’였다. 아들이 두 살 때쯤, 커서 뭐가 되고 싶냐는 할머니의 질문에 아들은 호랑이가 될 거라고 말했었고, 할머니는 일부러 귀여운 토끼가 되라고 두세 번을 말씀하셨다. 그러자 아이는 꼭 호랑이가 될 거라면서 분한 울음을 터뜨렸었다. 아들은 친구들보다 나이도 한 살 적고 몸집도 왜소했지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큼지막했다. 도둑이 되어도 대도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아들은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보였다. 그 속에는 종잇조각이 돌돌 말려 있었는데,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벌어들일 돈이라고 말했다. ‘1’자 뒤로 ‘0’이 30개 정도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들은 대도에 견줄만한 사건들을 시리즈로 뱅뱅 터뜨렸다.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게도 차마 말하지 못할 일들을.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은 ‘염치도 없는 놈. 어쩔 저렇게 저밖에 몰라?’라는 비난의 말을 되뇌고 있었다. ‘정말, 염치도 없는 놈!’



<그림 1> 2008년 여름, 아들이 그린 수표와 보관용 유리병

국민학교 3, 4학년 즈음, 크리스마スイ브 자정을 막 넘긴 시간이었다. 찬바람과

함께 부모님이 방안으로 들어오셨고 불이 켜졌다. 성탄전야미사를 보시고 들어오시는 길이었다. 저자인 '나'는 잠에서 깨지 않은 것처럼 실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잠들기 전과 똑 같았다. 머리 위에 양말을 걸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부모님이 아주 작은 선물이래도 들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역시나 그 해도 선물은 없었다. 단 한 번도 부모님으로부터 성탄 선물을 받아 본 기억은 없지만, 그때 나는 유독 선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여름방학이었다. 태양이 내리쬐는 터미널에는 뽀얀 먼지 사이로 버스 앞 유리창에 걸린 '만리포'라는 표지판이 저자인 '나'의 눈에 들어왔다. 당시 국민학교 4, 5학년 정도였던 것 같다. 정확히 만리포가 어디에 붙어있는 어떤 곳인지는 몰랐지만,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분명 놀러가는 행색이었고 만리포라는 곳은 좋은 곳임에 틀림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빠에게 만리포가 어딘지 물어봤고 아빠는 바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었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묻고 싶었다. 우리는 왜 놀러 가지 않는 거냐고. 나도 바다에 가보고 싶다고!

부모님은 깡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할머니를 모시고 4남매를 키우고 계셨다. 저자의 언니의 말에 의하면 어쩌다 밥상에 올라오는 계란프라이는 할머니나 아빠의 밥주발 속에 몇 손가락의 밥에 덮여 숨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할머니나 아빠는 그 계란을 남겨서 오빠나 언니에게 주곤 하셨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할머니와 4남매를 데리고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성탄선물을 사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것이다. 설마 정말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나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뭔가 갖고 싶다는 말을, 뭔가 사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끊임없이 뭔가를 갖고 싶어 하고 또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아들은 저자인 '엄마'에게 '염치도 없는 놈'이었다. 그렇다면 뭔가를 갖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저자인 '나'는 '염치 있는 딸'이었을까? 엄마에게 아들이 '염치' 없는 아들로 낙인찍힌 것은 아들의 성향 때문도 있지만, 염치없음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증폭된 이유는 어린 시절 저자인 나의 '욕구 좌절' 때문이었음을 엄마는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끝도 없이 사달라고 졸라대고, 사취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만 생각해?'라는 아들에 대한 엄마의 비난 속에는 '나는 안 저랬는데..... 저렇게 못했는데..... 나는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라는 표현되지 못한 어린

나의 '욕구'가 깔려 있었다. 성장기에 좌절된 엄마의 욕구는 아들의 욕구를 염치없음으로 인식하게 했고, 그 염치없음에 대한 인식은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게 되었다.

3.2. '느림'으로 드러난 존재의 '자유'

저자인 '엄마'의 아들은 2월에 태어났다. 아들은 키도 작고 산만한데다 느리기까지 했다. 게다가 외동아들인지라 사회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지만 엄마는 잘 따라갈 수 있겠지 하는 바람과 함께 아들을 일곱 살에 입학시켰다. 그리고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2006년 4월 어느 날, 담임 선생님과과의 첫 상담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50대 초중반의 여자선생님이었다. 엄마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학교생활이 어떨지 물어보았다. 담임 선생님의 답변의 핵심은 이랬다. '아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냥 나뉘라.' 내심 그래도 노력하면 차츰차츰 좋아질 거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던 엄마에게 담임 선생님의 답변은 충격이었고 분노였다.

2006년 4월 어느 날, 초등1학년 담임 선생님과과의 상담(기억 자료)

선생님: 저도 애들을 키워 봤고 가르쳐 봐서 아는데, 애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엄 마: (당황하고 어이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며) '절대로 안 바뀐다고?'

선생님: (웃으며) 느리고 왔다 갔다 하죠. 느리면 어때요. 일부러 돈 주고 느리게 사는 걸 배우기도 하는데.....

엄 마: (속으로 화가 나서) '뭐 이런 선생님이 다 있어! 애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 나아지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라니!'

2009년 늦은 봄날 아침, 엄마는 설거지를 하며 주방의 창문 너머로 등교하는 아들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었다. 역시나 그날도 아들은 늦게 집을 나섰는데 학교에 가다 말고 화단에 핀 꽃을 만지작거리고, 잎사귀를 손바닥으로 툭툭 쳐보기도 하며,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경비실 옆을 지나가던 아들은 바닥에서 팔뚝만한 나뭇가지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연신 그 나뭇가지를 공중에 집어던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죽히 열두 번은 던진 것 같다. 기필코 그 나뭇가지를 경비실 지붕 위에 올려놓고야 말 기세였다. 설거지를 하려고 낀 빨간 고무장갑의 색갈만큼이나 엄마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순간 '빨리 학교

안 가!’ 라는 화난 엄마의 목청소리가 아파트의 동 간을 흔들었다. 순간 고개를 두리번거리던 아이는 집 쪽을 한 번 힐끗 쳐다보더니 냉큼 발걸음을 옮겼다.

2009년 12월에 아들은 전학을 했다. 꽤 먼 곳으로 전학을 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고 45분가량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는 집을 나서야 셔틀버스를 탈 수 있었다. 셔틀버스는 자주 아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곤 했다. 그때마다 셔틀버스 뒤로는 출근을 서두르는 자동차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셔틀버스 기사님의 얼굴과 그 뒤로 줄지어 서 있는 자동차 안에 사람들의 화난 표정이 눈에 보였다. ‘5분만 일찍 나가면 되는데..... 빨리 나가! 셔틀 와서 기다리잖아!’ 짜증 섞인 엄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970년 대 중반,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대여섯 살 정도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하다. 나는 부모님께 ‘잘못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 두 손을 모으고 짹짹 빌며 ‘잘못 했어요’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에 두 손은 고사하고 입술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순간을 넘기려면 ‘잘못 했어요’라고 말하고 빌기만 하면 됐는데, 꼭 다문 입술에는 더욱 힘이 들어갈 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내가 왜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그렇게 말하기 싫어!’ 그때의 시골집 건넌방은 지금도 어두침침하게만 기억된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나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욱 노력했다.

학교에 곧바로 안 가고 둘레둘레 돌아가는 상황, 셔틀버스를 기다리게 하는 상황, 혼나고 비난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잘못 했어요’라는 말을 되풀이해야만 했던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다. 어두침침한 시골집 건넌방에 서 있었던 대여섯 살의 저자인 ‘나’였다. 아들이 느린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꾸중을 하시는 선생님 앞에 엄마가 서 있었고, 셔틀버스 기사님과 셔틀버스 뒤로 길게 늘어선 자동차 안에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것도 엄마가 하고 있었다. ‘잘못 했어요’라는 말을 그토록 거부했던 저자인 ‘나’는 엄마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내몰고 있었다. 그런 상황의 표면적 원인은 아들의 ‘느림’이었지만, 아이의 ‘느림’은 고쳐야 할 바뀌어야 할 문제 상황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겪어야만 하는 나름의 고충을 해결하

고자 하는 아들의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엄마는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었다.

2009년 초여름, 등교하며 배회하는 아들을 본 엄마의 생각(기억 자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시간에 등교하고, 수업시간엔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집에 와서 학원가고, 학원에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다시 오면 손발부터 깨끗이 씻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반찬도 골고루 가리지 않고 먹고, 밤에는 일찍 자고…… 나는 이런 기계 같은 아이를 원하는 걸까?’

‘로봇 같은 아들이기보다는 때로는 학교에 늦게 가더라도 길 가의 꽃이 얼마나 예쁜지 느낄 수 있는 아이, 가을이 되면 낙엽을 주우며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아이, 선생님과 친구들이 싫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에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든 자기 방식대로 풀 줄 아는 아이. 그런 아이로 키우기를 원했던 게 아니니? 지금 저 아이의 모습은 오히려 자유의지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3.3. ‘이기’로 인식된 본질적 ‘자존’

2009년 초여름 밤의 일이었다. 저자인 ‘엄마’는 피곤에 지쳐 먼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들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말을 걸었다. 뭔가 좀 쭈뼛거리는 느낌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목소리로 물었다.

2009년 6월 24일, 아들과의 대화(부모교육 사례집 기록 자료 재구성)

아 들: 엄마, 내가 장난꾸러기야? 이기적이야?

엄 마: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고) 우빈이가 생각할 때 우빈이가 장난꾸러기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아 들: 응.

엄 마: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들:선생님이랑 애들이 그랬어.

엄 마: 그랬구나. 진짜 서운하고 속상했겠네.

아 들:근데 엄마, 나를 만든 정자 말고 다른 정자가 만든 아이가 있으면, 엄마는 그 애를 더 좋아했을 것 같아?

엄 마: 니가 태어난 거는 수 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너를 만든 난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정자였기 때문이야. 다른 아이는 엄마한테 의미 없는데.....

저자인 ‘나’의 어릴 적 기억에 의하면 엄마는 큰 상 하나와 작은 다과상에 밥을 차리곤 하셨다. 제일 어른이신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오빠, 언니, 동생이 같이 앉았고, 나는 엄마와 함께 앉았다. 어느 날 나는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오빠랑 언니랑 동

생은 왜 큰 밥상에서 먹고, 나만 작은 밥상에서 먹어야 하는지를. 엄마와 함께 밥을 먹어서 좋다는 생각보다는 큰 밥상과 작은 밥상 위에 차려져 있는 반찬의 수가 엄청 다르다는 것과 맛있는 반찬은 큰 밥상에만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난 후에. 그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빠는 장남이라서, 언니는 장녀라서, 그리고 여동생은 막내라서 큰 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그럼 난? 난 셋째여서 작은 밥상에 앉아서 맛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야?’ 억울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섯 살 즈음, 1970년대 중반의 기억이다. 집 주변 논밭에는 살랑살랑 바람이 일고, 논두렁 사이에 자리 잡은 연못에는 분홍색 연꽃이 우산만한 연잎들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연꽃잎보다 더 짙은 분홍빛 블라우스에, 예쁜 레이스가 밑단에 둘러져 있는 청치마를 입고 있었다. 순간, 아빠의 검게 그을린 두 팔은 나를 번쩍 들어 올려 아빠의 가슴까지 안아 올렸다. 하나, 둘, 셋. 찰칵. 그날 나는 예쁘게 차려 입고 아빠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었던 며칠 전에는 커다란 꾸러미를 들고 당숙이 오셨었다. 꾸러미 속에는 온갖 과자와 사탕, 껌뿐만 아니라 양말부터 분홍 블라우스, 짙은 남색 청치마까지 맛있고 예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설날에나 볼 수 있던 종합선물세트와는 차원이 달랐다. 나는 그 예쁜 옷을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오빠, 언니와 함께 과자를 나눠 먹었다. 독일에서 온 물건이라고 했다. 나는 사진을 찍어야 하고, 그 사진은 독일로 보내질 거라고 했다. 오빠와 언니는 연신 나보고 ‘넌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 당숙 중 한 분이 우리 집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셔서 부모님께 해외입양을 제안하셨던 것이다. 눈부신 연꽃들 사이에서 아빠의 두 팔에 안겨 있던 그때를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되뇌었던 말도. ‘이제 나는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뭐 혼자.....’ 다행히 나는 독일로 보내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이 마음을 돌리셨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기적이라고 한 말은 4학년 아들에게 마음 속 깊이 흔적을 남긴 것 같았다. 심지어 엄마에게 자기 대신 다른 애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느냐고 한 질문은 아들에 대한 외부의 평가나 태도가 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했을 문제였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챙기는 것이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에는 ‘이기’로 비춰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런 외부적인 평가는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나를 만든

정자 말고 다른 정자가 만든 아이’를 엄마가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아들의 생각은 어쩌면 분홍 블라우스에 칭치마를 입고 사진을 찍던, 입양 보내지기 전의 저자인 ‘나’의 마음과 비슷했지 않았을까. 나는 알게 모르게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입었고, 나 또한 아들에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를 주고 살아왔다. 부모와 자녀,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개인적 성향과 가족 상황, 사회문화적 맥락 때문에 서로의 ‘자존’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상채기를 남겨 왔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3.4. ‘공부’로 강요된 절박한 ‘생존’

아들은 한 살 어리고 왜소했지만 활동적이어서 가만히 있기를 힘들어했고 아이들과도 자주 부딪혔다. 그런데 1학년 담임 선생님과 달리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문제 안 일으키고 암전히 앉아서 수업 듣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현실이었다. 아들은 선생님들한테 예뻐온커녕 미움 받기 쉬운 존재였고, 친구들에게는 얄보이기 쉬운 아이였다. 방법은 딱 하나였다. 공부! 엄마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공부를 잘하면 웬만해서는 얄잡아보지 못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도저히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조연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아이에게 공부를 더 열심히 시켜야만 했다. 그러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미운 다섯 살, 패주고 싶은 일곱 살은 그야말로 장난이었다. 어느 순간 엄마는 죽여 버리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곧이어 아이가 아닌 엄마가 죽어버릴 것 같은 고통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아들이 4학년이었던 2009년에는 사건도 많았었고 아들과의 대화도 많았었다. 부모교육 강사과정을 밟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잘 버티고 견뎌냈던 시간들이었다. 그날 밤도 아들은 안방으로 건너오더니 엄마 옆에 누워 뒹굴뒹굴하기 시작했다.

2009년 6월 24일, 아들과의 이야기(부모교육 사례집 기록 자료)

“엄마, 전에 나 자살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쇠로 된 장난감 칼 있잖아 그걸로. 그리고 베란다 난간 위에 올라간 다음에 아래를 내려다 본 적 있어”

전 순간 번쩍 잠이 깨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 조그마한 아이가, 그것도 10살 밖에 안 되는 아이가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니…… 그것도 생각만이 아니라 방법까지…… 뭐가 이 아이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래서 두 손으로 우빈이의 얼굴을 감싸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며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우빈이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몰랐네. 미안. 그런데 뭐가 그렇게 우빈이를 힘들게 했지? 엄마 때문에 그런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 때문이 아니라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수학문제를 푸는데 백 번을 생각해 봤는데도 모르겠어서 너무 짜증이 났다고요. 전 한 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아이가 공부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 첫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렸던 순간을 저자인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성적표를 건네받은 아빠는 쪽 훑어보시더니 옆에 계신 엄마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했다. 그 때 엄마가 아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재는 언니, 오빠랑은 다르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빠와 언니는 항상 1등을 했다. 게다가 오빠는 당시 대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국민학교로 유학을 가자마자, 반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고 금세 1등을 차지하더니 농치지를 앓았다고 한다.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 힘들게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뒷바라지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그런 오빠, 언니하고는 다르게 나는 8등을 했었던 것이다. ‘재는 언니, 오빠랑은 다르네.’라는 말이 맴돌았다.

나도 6학년이 되면서 대전으로 유학을 왔다. 엄마와 아빠 두 분은 계속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지만, 자식들이 6학년이 되면 대전으로 유학을 보내셨다. 깡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4남매 모두를 대학에 보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4남매 모두는 국립대학교의 동문이 되어야 했다.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부담감은 항상 따라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인 ‘나’는 하루 종일 수업을 안 들어가고 땡땡이를 치다가 저녁을 먹으러 학생식당에 갔었다. 그런데 문득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밥을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며 저녁을 굶었던 적이 있었다.

오빠나 언니랑은 다른 낮은 성적을 받았었던 아이,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아이, 땡땡이를 치면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는 어려서 입양 보내질 뻔했던 아이였고, 작은 밥상에서 따로 밥을 먹어야 했던 아이였다. 버리지 않고 4남매의 울타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또 같아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만 했다. 저자인 ‘엄마’에게 있어서 ‘공부’는 ‘생존’이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자신의 생존방식인 공부를 고스란히 아들에게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아들을 얹잡아 보지 않게 하고 싶다는 엄마의 마음은 표층의 것이었을 뿐, 그토록 아이의 공부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엄마의 심층에 깔려 있었던 생존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후 공부 때문에 벌어졌던 아들과의 전쟁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3.5. ‘수치’로 내모는 인식된 ‘사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저자인 ‘엄마’에게는 파블로프(Pavlov)의 개처럼 전화벨과 초인종이 울리면 심장이 쿵쿵쿵 뛰는 조건반사현상이 있었다. ‘전화를 받아 말아? 문을 열어줘 말아?’ 하는 갈등에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늘도 또 선생님이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건가? 또 누가 무슨 일 때문에 찾아온 거지?’ 하는 생각들이 심장박동만큼이나 빠르게 반복되었다. 그 후로 엄마는 쓰레기조차 버리러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아이에 대한 비난의 눈빛인 것만 같았고, 말을 걸어오면 힐난의 소리를 듣게 되거나 앓을까 두려웠다. 아니 수치스러움에 도저히 문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은데다가 욕하는 성격을 가진 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 파악이나 상황 판단이 느려서 점점 더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다. 그때마다 항의성 전화와 방문은 이어졌고, 그걸 응대해야만 했던 건 전적으로 엄마였다. 물론 오해가 불려온 사건도 있었고 아들도 화를 낼만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너무나 치욕스러웠다.

5학년인 아들이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오고 한 2주일쯤 지났을 때, 2학년 교리 선생님이 찾아왔다. 한 2학년 남학생의 엄마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성경학교에서 우빈이가 자기 아들한테 밤에 바지를 내리고 고추를 보여라고 했다는 거다. 허억! 그러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신부님한테까지 찾아갔지만, 신부님은 밤에 남자아이들만 있던 방에서 초등학교 교학이면 그런 장난을 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2학년 남자아이의 엄마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고, 사건은 입에서 입으로 들불 번지듯 번진 모양이었다. 그러나 우빈이의

말은 달랐다. 하의실종 놀이를 했다는 거다. 당시 걸그룹들이 TV에 나올 때 하의를 워낙 짧게 입고 나와서 매스컴에서 ‘하의실종’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곤 했었다. 아들은 자기가 먼저 반바지는 최대한 걷어 올리고 상의는 최대한 잡아 내려서 마치 바지를 입지 않은 것처럼 해보였고, 다른 친구들과 동생들한테도 따라 해보라고 했다는 거다. 다들 재밌게 놀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엄마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과 자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고 있을 아줌마들의 얼굴로 가득 찼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분했다. 그런데 아들과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아했다. 사실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창피하고 화가 왜 나냐며 오히려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상하게 바라보았었다.

저자인 ‘나’에게는 창피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국민학교 1학년 때의 화장실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중학교 1학년 때의 회중약 사건이다. 나는 국민학교 때 소심했고 특히, 정해진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거나 모른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무척 곤욕스러웠다.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수업시간이었는데 화장실에 너무나 가고 싶었다. 그런데 선생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고 참고 또 참아서 겨우 화장실에 갔는데, 그만 속옷을 내리는 순간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런 모습을 열린 문 사이로 다른 친구가 봤고 그 애긴 여기저기로 옮겨졌다. 그때 그 친구들의 웃는 표정과 입놀림을 지울 수가 없었다.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나를 부르시더니 알약을 내밀며, 얼마 전 학교에서 한 기생충검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다. 얼굴이 화끈 거리고 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국민학교 때도 없었던 일인데 중학생인 나에게..... 교무실로 따로 불러서 조용히 말씀해 주신 담임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당시만 해도 위생상태가 그리 좋았던 시대가 아니었고, 인분으로 채소를 키우던 농가들도 있었던 까닭에 기생충 검사를 하면 한 반에 서너 명 정도는 약을 먹어야 했던 때이다. 게다가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었던 때여서 살뜰히 보살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상황은 그랬지만 어찌됐든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수치스런 사건이었다.

화장실 사건과 회중약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인 ‘나’는 매우 소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이런 특성은 저자인 ‘엄마’가 아들과 관

런해서 꺾어야만 했던 수치심의 정도를 훨씬 깊게 했다. 전화소리와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곤두박질쳤고, 쓰레기조차 버리러 나가길 꺼려했던 엄마였다. 그런 엄마에게 하의실종 사건은 수치심의 결정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치심과 억울함에 치를 떨어야만 했던 엄마는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는 인지능력이 덜 발달된 저학년 남학생의 눈에는 하의실종 놀이가 다르게 비춰질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엄마는 성희롱 사건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그런데 부모들은 가끔 자기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전부 사실인양 흥분하고 억울해 하는 경우가 있다. 저자인 엄마도 그랬었고, 성희롱 사건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을 2학년 남학생의 엄마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은 사람에 따라, 성별에 따라, 혹은 나이와 입장 등에 따라 전부 제각각 다르게 인식될 수 있고, 그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저자인 엄마도 사건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고, 그래서 아들에게도 하의실종 놀이가 초등저학년 아이와 그 부모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와 그들의 감정이 어떠했을 지에 대해서는 훈육을 해주지 못했었다. 단지 수치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이와 남편을 원망했을 뿐이었다.

3.6. ‘죄책’으로 다가온 노력하는 ‘최선’

2006년 초등학교에서의 첫여름방학식이 끝나고, 1학년 반모임을 함께 했던 엄마들과 그 아이들은 넓은 잔디밭에 모여 치킨, 피자, 김밥 등등을 시켜 놓고 실컷 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자인 ‘엄마’의 입에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짧고 격양된 목소리가, 그러나 간신히 목구멍을 비집고 나왔다. 덩치 큰 남학생이 우빈이를 그야말로 개 패듯 패고 있었고, 왜소한 우빈이는 몸을 동그랗게 웅크리고서는 그대로 맞고만 있었다. 저자인 엄마는 그 아이의 엄마가 제지할 때까지 참고 기다렸지만, 점점 더 격하게 우빈이를 때리는데도 그냥 희희낙락할 뿐이었다. 그 때 저자인 엄마가 내뱉었던 말은 고작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였고, 때린 아이의 엄마는 요즘 애가 태권도를 배워서 그런가 하며 어정쩡하게 말했다. ‘이런 거지같은 것들!’

2009년 초여름 어느 날, 우빈이의 죽마고우인 현우의 엄마가 찾아왔다. 현우는 당시 우빈이와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같은 학년이어서 급식시간에 우빈이가 겪은 일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며칠 전 우빈이가 급식실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다가와 뒤에서 우빈이의 머리채를 낚아채더니 뒤로 허리가 90도는 꺾일 정도로 세게 끌고 간 다음, 줄 맨 뒤에 세웠다는 거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주위의 아이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그 부당한 일에 대해 흥분해 했다는 것이었다. 현우 엄마 역시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학생 머리채를 잡고 허리가 꺾어지도록 끌고 갈 수가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순간 저자인 ‘엄마’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가슴이 저미어 오는 걸 느꼈다. 정신없이 떠들다가 또 선생님한테 혼났구나하는 생각과 더불어, 아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까하는 생각에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건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아들이 겪어야만 하는 시련 때문이었다. 엄마는 아이가 잘 버텨주기를, 무사히 4학년올 마칠 수 있기를 바랐다.

2009년 11월 19일, 아들과의 대화(부모교육 사례집 기록 자료 재구성)

아 들: 엄마, 사장을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해?

엄 마: CEO? 그런데 사장을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하는지가 왜 궁금한데?

아 들: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물어봤는데, 사장을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하는지 생각이 안 나서 대답을 못했어.

아 들: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깐 선생님이 나한테 ‘아, 백수?’하고 말했는데, 애들이 막 다 웃었어.

엄 마: 백수라는 말을 들어서 억울하고 창피했겠네. 친구들도 막 웃고.

(전에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일을 떠올리며) 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란 친구들이 욕심쟁이라고 할까봐 말을 못했구나?

아 들: (고개를 막 끄덕이며) 응, 그랬어. 욕심쟁이라고 할까봐.

저자인 ‘나’에게는 국민학교 2학년 때쯤 비오는 날 생긴 상처 자국이 있다. 그날은 여름이었고 학교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나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학교 처마 밑에 서서 우산을 들고 아이를 데리러 오는 엄마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혹시 우리 엄마도 오지나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다. 시골길은 온통 빗물에 흠 범벅으로 저벅저벅했다. 맨발에 고무 슬리퍼를 신었던 내 발은 연신 푹푹 진창에 빠졌고, 한 발을 내딛으면 진흙더미가 슬리퍼를 꿀꺽

삼키듯이 달라붙었다. 발등에 힘을 주어 박혀버린 슬리퍼를 건져 올리듯 그렇게 걸었다. 한 시간이면 집에까지 갔던 길을 두 시간은 걸려서 돌아왔던 것 같다. 그리고 그날 오른쪽 발등에는 고무 슬리퍼에 쏠린 깊은 상처가 났고 지금까지 그 자국이 남아있다. 그 이후로도 엄마는 한 번도 우산을 들고 학교에 찾아온 적이 없었다.

흰 창호지가 정갈하게 발라져 있는 격자무늬 미닫이문 가운데에는 유리로 된 박을 내다볼 수 있는 조그마한 창이 나 있었다. 그리고 그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시게 하얀 빛. 이 장면은 항상 부모님의 어떤 증언과 연결된다. 나는 이른 봄에 태어났고 엄마는 산후조리도 못한 채 하루 종일 논에서 김을 매야만 했다는 얘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저녁 늦게까지 들판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갓난아기인 나를 안아 올렸는데, 내 고개가 한 쪽으로 돌아간 채 움직여지질 않았다고 한다. 고개 병신이 된 게 아닌가 엄마는 덜컥 겁이 났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젖을 먹일 때도 재울 때도 고개가 반대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 얼마가 지나자 내 고개는 정상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엄마가 추측하건데, 갓난아기가 하루 종일 빛이 쏟아지는 창 쪽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셨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을 어린 내가 너무나 불쌍했다.

저자에게 있어서 부모는 언덕과 같은 존재여야만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하고, 입히고 먹이는 것 외에 정서적으로도 힘이 되어 주어야만 하며, 가끔은 우산을 들고 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굳이 애착이론의 ‘안전 기지(secure base)’(Ainsworth, 1963)를 말할 필요까지도 없이. 이런 까닭에 저자인 ‘엄마’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했고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언덕이 되어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자인 ‘엄마’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1학년 아들이 무자비하게 맞고 있었을 때 단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고 밖에 말하지 못했던 엄마, 4학년 내내 친구들 앞에서 혼나고 무시당하고 머리채를 잡혀야만 했던 아이를 보호해 주지 못했던 엄마. 많은 부모들은 이렇듯 최선과 죄책 사이를 오가며 부모의 삶을 살아나간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부모에게 최선이란 없다. 단지 최선일 것 같은 것을 노력할 뿐, 차선을 받아드릴 수 있는 마음자세가 최선이다.

4. 혼돈의 가장자리, 의미 있게 일어서기

4.1. ‘고통’의 의미: 상처 입은 어린 시절의 전철 밝기

부모로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결정적 사건들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의 특성상 또는 주변 관계 및 사회문화적인 맥락상 다양한 갈등양상이 발생하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시련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저자가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 속에 드러나는 주체의 한 축인 ‘염치-느림-이기-공부-수치-죄책’은 저자가 본인의 성장과정 속에서 상처 입었던 자녀로서의 본인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관계성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시련으로서 저자인 ‘엄마’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그러나 아들로 인하여 표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고통은 실은 엄마가 경험한 자녀로서의 상처로 인하여 아들과의 갈등은 증폭되었고, 부모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부’와 관련된 ‘고통’의 일면을 살펴보면, ‘공부’의 의미는 ‘소외’의 극복을 위한 개인의 생존방식으로서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고(이형빈, 2014), 프롬(Fromm, 1961)에 의하면 ‘소외’는 인간이 세계를 소유함에 있어서 창조자로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에게 세계가 낯선 것으로 있음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부’는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세계를 창조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세계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생존방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 있어서 공부는 오히려 세계를 창조적으로 소유하게 했다기보다는 생존의 절벽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절박함이었다. 아들의 공부에 집착함으로써 드러난 엄마의 고통은 자녀로서의 본인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불충분했을 때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왔고 더욱더 아들의 공부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는 고통의 원인을 오로지 자녀에게서만 찾으려고 몰두할 때 더욱 그 고통 속에 매몰될 수 있다. 저자인 엄마는 어린 시절 연속된 욕구 좌절을 겪어야만 했고 해외로 입양될 뻔 했으며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초라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로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입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어떻게 아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기 전까지 엄마에게 아들은 이

해할 수 없는 고통의 대상이었다. 부모는 ‘고통’으로 인식되는 것들을 자녀와의 결정적 사건들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결정적 사건들과의 영향 관계와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부모 자신의 ‘상처 입은 어린 시절의 진찰 밟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모는 자신의 성장과정을 돌이켜 봄으로써 자녀로서의 과거와 직면(confrontation)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기 내면의 약함과 초라함에 마주하여 그 모습 역시 자신의 일부분임을 수용하고 애도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출발점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김명찬(2015)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저자가 부모로서 겪은 고통은 저자가 자녀로서 겪은 결정적 사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상황 즉, 갓난아기일 때 돌봄을 받지 못한 점, 해외입양의 두려움, 가난으로 인한 욕구 좌절 등에 의하여 아들과의 갈등을 더욱 키웠으며, 사회적 불안을 더욱 자신의 불안으로 끌고 올 수밖에 없게 하였다. 그러나 부모로서 겪게 되는 고통은 부모의 개인적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결코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는 자문화지술자가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과 성찰에 대한 저자의 반영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에 더해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해를 돕는다는 존스(Jones, 2005)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외동자녀를 독박육아 한다는 것, 대도시 학구열이 뜨거운 아파트촌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 2000년대 초반에 전동자동차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 암전하고 말 잘 듣는 학생들에게 호의적인 교육현장, 자살이 만연한 사회적 현실 등은 저자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쳤던 고통의 배경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부모들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의 배경이기도 하며,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듯 저자는 상처 입은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인하여, 또한 결정적 사건 속에 얽혀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문화적 상황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하여 폭 넓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더욱 불안해하였고, 그 불안은 자녀와의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왔다.

그러나 ‘고통’의 의미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프랭클(Frankl, 1947)의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실존의 의미와 그러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인간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끄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Frankl, 1985). 프랭클(Frankl, 1988)은 삶의 의미 찾기에 있

어서 특히 태도적인 가치를 중요시 하였는데, 태도적 가치란 인간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취하는 태도 변화를 뜻한다.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시련은 오히려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프랭클(Frankl, 1985)은 삶의 의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 역시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결정적 사건 속에 나타나는 부모로서 겪는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은 더 이상 고통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동들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자녀의 장애를 뛰어넘어 부모로서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디비니(Diviney, 2001)의 연구결과와 장애아 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세상을 달리 바라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한성희 · 박혜준 · 이규옥(2010)의 보고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2. ‘성장’의 의미: 어린 나를 키워가는 성찰의 시간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 속에 나타난 ‘고통’으로서의 주제인 ‘엄치-느림-이기-공부-수치-좌책’의 축은 저자인 ‘엄마’가 철저한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즉, 갈등상황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성찰이 가능해지면서 부모의 삶에 대한 진정한 ‘성장’의 의미로서 ‘욕구-자유-자존-생존-사실-최선’이라는 또 다른 주제의 한 축으로 안내되었다. 인간은 시련을 통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프랭클(Frankl, 1985)의 말처럼 부모의 ‘고통’은 부모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부모의 ‘성장’은 고통스러웠던 자녀로서의 ‘어린 나를 키워가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도 다다를 수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성장’은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녀가 자녀 그 자체로서 커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다림과 인내의 용기로도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적 사건들 속에 나타난 ‘자유’와 관련된 ‘성장’의 일면을 살펴보면, ‘느림’으로

대변되는 아들의 행동특성에 대한 엄마의 좌절은 ‘자유’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가능해짐으로써 ‘느림’이라는 아들의 특성은 있는 그대로 수용될 수 있었다. 프랭클(Frankl, 1985)은 조건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조건에 대하여 스스로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하였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죽음의 상황에서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아들의 ‘느림’은 단순한 행동특성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몸짓이었음을 엄마는 깨닫게 되었다. 또한 자녀로서 저자의 성장과정 중에 드러난 비난받기 두려워하는 어린 나로 인하여 ‘느림’에 대한 고통이 심화되고 있었음을 엄마는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과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 자체는 저자에게는 ‘어린 나를 키워가는 성찰의 시간’이었으며, 부모로서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프랭클(Frankl, 1988)은 인간 존재가 차지하는 다양성과 전체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차원적 존재론’을 제시하였는데, 제1법칙은 동일한 현상들이라고 해도 본래의 차원보다 낮은 차원에 투영되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제2법칙은 서로 다른 현상들이라 해도 낮은 차원에 투영되면 서로 일치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부모로서 겪은 결정적 사건은 어떤 차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이해와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은 부모의 입장으로서만 자녀를 바라볼 때와, 본인 자신의 성장과정으로 인한 영향 관계를 인식한 후에 자녀를 바라볼 때 사뭇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차원적 존재론’은 부모로서의 개인이 결정적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으며, 이는 결정적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의실종 사건에 대하여 5학년 아들과 2학년 남학생, 그리고 각각의 엄마들의 인식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것이었지만 각자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갈등을 빚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자녀들의 행동과 태도는 비록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행동과 태도의 내면에는 자녀 각자의 성향과 인식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 역시 제각각 다른 본질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부모의 삶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과 상황에 대하여 오해와 왜곡 없이 그 자체의 본질을 성찰할 수 있

을 것이다.

원(Schön, 1983)이 제안한 실천적 인식론은 불확실성과 특수성, 가치갈등의 실천 상황에서 전문가가 발휘하는 예술적이며 직관적인 인식과정을 나타낸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역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녀마다의 특수성, 그리고 순간 순간 가치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모는 이론적 전문가가 아닌 실천적 전문가로서 예술적이며 직관적인 인식과정을 거쳐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원(Schön, 1983)의 ‘행위 중 성찰’을 실천할 수 있어야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행위 중 성찰’은 행위가 일어나는 문제 상황 안에서 행위의 기저에 깔려있는 앎을 표면화하고 비판·재구성한 후, 재구성된 앎을 후속 행위 속에서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상황 속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해결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특성 및 제반 환경 등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어제와는 다른 행위로서 문제 상황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

부모자녀 간의 갈등상황에 대한 원인의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의 맥락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로서의 성장과정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부모의 자녀로서의 시간은 이미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석 실험(on-the-spot experiment)’의 단계를 거칠 수는 없다. 즉, 과거 부모 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해서는 ‘행위 중 성찰’은 불가능하고 ‘행위 후 성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위 후 성찰’을 통하여 얻은 부모의 성장과정에 대한 깨달음은 자녀와의 갈등상황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며, 이런 ‘행위 후 성찰’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부모자녀 간의 문제 상황에서 즉석 실험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로서 겪은 결정적 사건들과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 간에는 일정한 패턴을 이루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행위 후 성찰’을 통하여 가능하다.

부모의 ‘성장’은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 자체에 대한 의미와 그것이 부모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에 미치는 영향을 ‘행위 후 성찰’에 의하여 깨달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상황에서 ‘행위 중 성찰’을 실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태의 개선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결정적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개인이 처해 있는 가족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개선을 위한 실천적 행위를 구

체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행위 후 성찰’과 ‘행위 중 성찰’ 모두가 중요하다.

4.3. ‘행복’의 의미: 고통 속에 피어난 성장의 물줄기

인간은 누구나 과거와 현재의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프랭클(Frankl, 1988)에 의하면 ‘행복의 추구’는 그 자체가 오히려 ‘행복’을 좌절시킨다. 행복할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프랭클(Frankl, 1988)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인간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필연적으로 행복은 인간의 관심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해야 할 이유는 보지 못하게 되고 행복 그 자체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저자가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맞닥뜨린 갈등양상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왜곡된 행복 추구의 결과물이었다. 또한 저자가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추구했던 본인의 행복 추구 방식을 그대로 아들의 양육과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으로써 불러온 결과였다.

결정적 사건 속에서 저자인 엄마는 어리고 왜소하며 지나치게 활동적인 그리고 상황 인지와 감정 파악에 있어서는 좀 발달이 느린 아들의 성향을 걱정했다. 엄마는 그런 아들이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알아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시간에 학교에 등교시키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매달렸다. 규칙에 맞게 생활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엄마의 성장과정에 있어서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행복 추구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을 위한 이러한 엄마의 행복 추구 노력은 아들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야기하였다. 엄마의 의도적인 목표설정을 통한 행복 추구는 프랭클(Frankl, 1988)의 주장처럼 그 자체가 행복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프랭클(Frankl, 1988)에 의하면 고통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태도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통스러운 부모의 삶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부모는 ‘행복 추구’에 의한 행복 좌절이 아니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결정적 사건들 속에서 부모로서 저자가 직면했던 ‘엄치-느림-이기-공부-수치-죄책’의 순간들과 부모로서 대면하기를 희망하는 이상적인 행복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저자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긴장은 제거의 대상이나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행복 사이에 존재하는 적당한 긴장은 부모와 자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러한 성찰적 태도는 부모에게 성장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통’은 ‘성장’의 모습으로 안내되면서 현실과 ‘행복’ 사이에 존재했던 긴장은 완화되었고, 부모와 자녀 모두 그 자체로서의 존재의 의미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부모의 ‘행복’은 이렇듯 ‘고통 속에 피어난 성장의 물줄기’와 같은 것으로 ‘고통’의 영향관계와 의미를 깨닫게 된 즉, ‘성장’한 부모에 의해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드러나는 삶의 노정이었다.

슈미드(Schmid)가 이야기하는 ‘충일감의 행복’은 전관적(全觀的)으로 성찰함으로써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사이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충족체험이며 의미체험이다(김정현, 2015에서 재인용). 니체(Nietzsche)가 추구하는 행복도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성숙한 영혼이 체험할 수 있는 충일감의 행복이지, 안락감이나 우연에 의한 행복이 아니다(김정현, 2015에서 재인용). 반면 셀리그만(Seligman, 2004)이 주장하는 긍정심리학에서의 행복은 부정적 정서에서 시선을 돌려 긍정적 정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긍정성의 과잉을 불러와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홍경자, 2015). 삶에 대한 긍정적 정서만을 강조하고 부정적 정서를 차단하고자 하는 행복감은 지독한 고통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마치 허공에 대고 부르는 세레나데와 같이 들릴 수 있다. 또한 긍정성에 대한 집착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성찰을 배제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통이라는 부정적 정서 속에 휩싸여 있는 부모들에게는 우선 부정적 정서의 정체를 확인하게 하고 그 부정적 정서가 어떤 체험적 사건들로부터 기인하는지를 성찰하게 함으로써,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 정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정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5. 나가기

양육갈등을 드러내는 결정적 사건들 속에는 저자가 자녀로서 겪어야만 했던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배경이 깔려 있었다. 그러한 특성과 배경은 저자에게 현재 한국의 부모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혼란을 더욱 자신의 것으로 끌어오게 하였고 자녀와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결정적 사건들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자녀와의 갈등상황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성찰을 통하여 자녀로서의 자신의 성장과정을 확인하고 결정적 사건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저자는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원인이 자녀와 관계된 영역을 넘어 저자가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에서 드러나는 상처 입은 어린 자신에 의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녀와 세상에 대한 불안도 찾아들 수 있었다.

부모는 자녀로서 겪은 결정적 사건을 통하여 부모로서 겪은 결정적 사건을 이진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만의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자녀와의 갈등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과 혼란의 정서로부터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결정적 사건에 대한 회고와 성찰은 부모가 성장하고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성찰적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정적 사건에 대하여 부모가 부모로서의 삶을 오해와 왜곡 없이 그 자체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깊이 있는 성찰과 실천적 행위가 필요하다. 특히 좌절과 시련 속에 휩싸여 있는 부모들에게는 삶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어떤 체험적 사건들로부터 기인하는지를 성찰하게 함으로써,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끊임없이 부모로서의 삶을 노력하지만 여전히 좌절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좌절은 부모를 성장하게 하며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부모의 삶은 없는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순간순간 좌절하고 고통 받는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삶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불안과 혼란 그리고 좌절로부터 한 발 벗어나 자녀를 자녀 그 자체로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다림의 용기가 발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첫째, ‘의식적 질문 던지기’이다. 이것은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자신’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에 대한 일반화된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되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자신을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의식적 질문 던지기’는 미처 의식 밖으로 드러나지 못한 부모와 자녀로서 경험한 결정적 사건들을 떠오르게 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쳐 결국 부모로서의 삶에 대하여 어제와는 다른 변화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폭넓게 성찰하기’이다.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관계적 인식과 인식의 차원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녀에게만 국한된 세상이 아닌 다양한 관계들이 펼쳐져 있는 세상과의 관계적 인식을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삶을 성찰함에 있어서 인식의 차원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식의 차원을 확장한다는 것은 부모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차원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다양한 인식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낮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제각각의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하고 폭넓게 성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셋째, ‘인간적 관계 실천하기’이다. 부모로서 알고는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지시하고 통제하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부모는 실생활에서 자녀를 독립적이며 완전한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언제든지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 그 자체로서 수용되어질 수 있는 인간적 관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인간적 관계는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실천적 도전이 필수적이다. 부모는 자녀 양육의 갈등상황에서 자녀와의 인간적 관계에 대한 실천적 행위에 나섬으로써 부모로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찬 (2015). '상처 입은 아버지와 아들'의 회복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8(4), 85-120.
- 김영천 (2013a).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초판). 과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 (2013b). *질적연구방법론 III: Writing*(2판). 과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정현 (2015). 니체의 행복과 치유의 사상. *철학연구*, 135, 209-235.
- 남수경·김명찬 (2016). '부모화된 자녀' 경험에 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가족과 가족치료*, 24(3), 315-338.
- 박미옥·김명찬 (2015). 사별 후 재혼가정에서 자란 한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1(2), 25-56.
- 박성환·최성우 (2010). Blended-Learning 기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ing Cross-fertilizing Program)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평생교육·HRD연구*, 6(2), 21-39.
- 이동성 (2011). 한 교사교육자의 교수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4(3), 31-67.
- 이동성 (2012). *질적연구와 자문화기술지*.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이원희·곽승철 (2014).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통합교육 인식과 관점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특수교육학연구*, 49(3), 89-119.
- 이형빈 (2014). 학생의 수업참여 및 소의 양상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과정연구*, 32(1), 25-51.
- 최혜옥·김성길 (2015). 부모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전환적 배움. *미래교육연구*, 5(1), 43-59.
- 한성희·박혜준·이규옥 (2010).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가족의 성숙과 변화.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137-163.
- 황인숙·김명찬 (2016). 부모와의 친밀감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2(2), 131-160.
- 홍경자 (2015). 철학상담 관점에서 바라본 행복의 의미와 긍정성의 과잉문제. *철학논집*, 42, 87-110.
- Ainsworth, M. D. S. (196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interaction among the Ganda.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2, 67-112.
- Chang, H. (2008). *Autoethnography as method*.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Inc.

- Diviney, E. A. (2001). *Well-Being of mothers while rearing a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chool of Education, N.Y. University.
- EBS 파더쇼크 제작팀 (2013). 파더쇼크. 서울: 쌤앤파커스.
- Ellis, C. (Eds.) (1999). Heartful Autoethnograph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9(5), 653-67.
- Frankl, V. E. (1947). *Zeit und Verantwortung: ein Vortrag*, gehalten in Innsbruck am 19. Februar 1947. Deuticke.
- Frankl, V. E. (1988).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이시형 (역) (2005). 삶의 의미를 찾아서. 파주: 청아출판사.
- Frankl, V. E. (1985). *Man's search for meaning*. 이시형 (역) (2005). 죽음의 수용소에서. 파주: 청아출판사.
- Fromm, E. (1961). *Marx's concept of man*. 김창호 (역) (1983). 마르크스의 인간관. 서울: 동녘.
- Jones, S. H. (2005). *Autoethnography: Making the personal political*. In N. K. Denzin &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3rd). (763-791). Thousand Oaks, CA: Sage.
- Reed-Danahay, D. (Eds.) (1997). *Auto/ethnography: rewriting the self and social*. Newyork: Berg.
-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 Seligman, M. E. P. (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김인자 (역) (2009). 긍정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물푸레.
- Wall, S. (2008). Easier said than done: Writing an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7(1), 38-53.
- Wallin, D. J.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역) (2010). 애착과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Woods, P. (1993). *Critical events in teaching and learning*. Basingstoke, UK: Falmer Press.

접수일자: 2017. 1. 31

심사일자: 1차 심사(2017. 2. 6~ 2. 7), 2차 심사(2017. 2. 9~ 2. 26), 3차 심사(2017. 3. 2~ 3. 9)
 계재 승인(2017. 3. 13)

필자성명: 김 현 경

소 속: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대학원(박사과정)

최종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M. A.)

관심분야: 부모교육, 기업교육, 교수체제설계

E - mail: hooray34@naver.com

필자성명: 유 영 만

소 속: 한양대학교 교수

최종학력: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육공학 박사(Ph. D.)

관심분야: 지식생태학, HRD

E - mail: 010000@hanyang.ac.kr

【Abstract】

**Finding the Meaning of Life as a Parent
through Critical Events**

Kim, Hyun-Kyoung

Graduate student, Hanyang University

You, Yeong-Mahn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As a parent education instructor and autoethnographer, I examined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ritical events on difficulties that a parent experiences while raising a child and the critical events that have been experienced during the parent's own childhood in order to search for the meaning of life as a parent.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first, the 'pain' experienced by a parent expanded and deepened not only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ld, but also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parent's own childhood. Second, 'growth' as a parent became possible when reflecting and realizing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and meaning of 'pain' experienced as a parent. Third, 'happiness' as a parent was attained after realizing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and meaning of 'pain,' in other words, it came to light naturally by finding the meaning of life as a parent by becoming a 'grown' parent.

For more concrete methods to find the meaning of life as parents, this study suggests 'asking conscious questions,' 'doing widespread reflection,' and 'practicing human relationships' to propose possibilities of new changes amidst various conflicting situations related to raising a child.

Key Words: critical events, Life as a parent, finding meaning, autoethnography